

107국 12만명 걸리고서야 “팬데믹”... WHO, 누구인가?

(Who are you?)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중 우한폐렴 발생 70여일 만의 판단 팬데믹, 상징적 의미... 새 의미 없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인정한 것이다. 중국에서 처음 ‘우한 폐렴’이 발병한지 70여일이 지나, 전세계 12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다.

◆“한국, 팬데믹 모범사례”

12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눔 거브리에루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팬데믹을 선포했다. WHO는 공격적인 조치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각국에 더 많은 노력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만일 국가가 탐지, 진단, 치료, 격리, 추적 등을 한다면 소수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집단 감염과 지역 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지역 감염이 벌어지는 나라에서조차 코로나19의 흐름을 바

꿀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 등이 취한 적극적인 조치를 바이러스 통제에 모범 사례로 꼽았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해 이란과 이탈리아, 한국이 취한 조처에 감사한다”며 “그들의 조처는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회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안다”고 말했다.

다만, WHO의 팬데믹 선언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 이에 따라 각국이 새로운 행동을 취할 의무는 없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현 상황을 팬데믹이라고 묘사한 것은 코로나19가 제기한 위험에 대한 WHO의 평가를 바꾸지 않는다”며 “WHO가 하는 일과 각국이 해야 하는 일을 바꾸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07개국, 12만명이 걸렸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코로나19 첫 발병 이후 두달이 넘게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면서 낙담대응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다.

코로나19는 지난 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중국에서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대거 발병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후 70여일 동안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확산됐다. 질병관리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세계 107개국에 11만630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했다. 그 중 사망자는 4548명에 달한다.

가장 최근 사례인 지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의 경우, WHO는 발병 6주만에 팬데믹 선언한 바 있다. 당시 74개국에 3만여명의 신종플루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이었다. WHO가 망설인 것은, 팬데믹은 상징적인 의미임에도 전세계 불필요한 공포를 일으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이날 “팬데믹은 가볍게 혹은 무심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잘못 사용하면 비이성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전쟁이 끝났다는 정당하지 못한 인정을 통해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아시아 지역을 넘어 미국과 유럽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팬데믹 선언의 압박도 커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까지 미국에서는 12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탈리아에서 1만2000명,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도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최근 2주 사이 중국 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13배 증가하고, 피해국도 3배 늘었다”면서 “현재 114개국에 11만8000여 건이 접수돼 429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WHO,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 선포 사례

	1968 홍콩 독감	2009 신종 인플루엔자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H3N2	H1N1	COVID-19
발원지	홍콩	멕시코	중국 우한
사망자	100만명 이상 (추정)	1만 8,500명	4,600여명 (12일 현재)
증상	고열, 전신 근육통, 심한 피로감 유발	발열, 기침, 인후통, 무력감 등	고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경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분비물(비말) 접촉, 바이러스가 묻은 오염된 손 통해 감염		
특징	전염성 매우 강함	38℃ 이상의 고열없이 발생하기도 함	신종플루와 달리 현재 항체 및 치료제 없고 잠복기가 2~14일로 긴 편

바이러스 유행병의 규모 단계

집단발병(아웃브레이크) → 유행병(에피데믹) → 대유행병(팬데믹)

집단발병 (아웃브레이크)	유행병 (에피데믹)	대유행병 (팬데믹)
질병 사례 수 증가	급격한 질병 사례 수 증가	많은 사람에게 대유행하는 단계
▶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나 범국가적으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전염이 해당 지역 범위를 넘어 타 지역이나 다른 국가까지 확산	▶ 여러 국가 또는 대륙으로 광범위하게 퍼짐
▶ 일반적 감염경로를 보임. 동물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환경에서 발생	▶ 단기간에 사람간 전염의 영향력이 커짐	▶ 과거 대유행병 바이러스는 주로 동물이 매개가 된 경우가 많음
예시 → 계절성 독감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코로나19

자료/세계보건기구(WHO) 사진 출처: 미국 질병관리본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했다. 사진은 임용자들로부터 경례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 코로나 이길때 까지 긴장의 끈 잡기를”

文 대통령, 신임경찰 임용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새로 임용되는 경찰들에게 “코로나19를 완전히 이길 때까지 긴장의 끈을 굳게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의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에서 “국민이 어려울 때 더 빛나는 경찰의 봉사과 헌신을 보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의 ‘애국만민’ 정신이 100년의 역사를 가로질러 생생히 살아 있음을 느낀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며 “경찰청은 경찰 인재개발원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해 아산 시민들과 함께 감염병 극복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경찰 혁신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며 “치안 분권을 위한 자체경찰제와 통합경찰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이 하루빨리 민주적이면서 가깝게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자부심으로 이겨간다. 정부는 경찰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며 “2022년까지 2만 명 증원을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겠다. 불합리한 직급구조를 정상화하고 막중한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구로 콜센터 ‘감염병 특별지원구역’ 지정

박원순 서울시장, 온라인 브리핑
신도림 인근 인적·물적자원 집중
코리아빌딩 통신기록 전수조사
13~19층 오피스텔 주민 전원 음성
잠복기 철저관리, 자가격리 권고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한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일대를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리아빌딩의 집단감염 사례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도림동 인근 지역에 인적·물적 지원을 집중하고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19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14명 늘었다.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확진자는 102명으로 서울에서만 71명을 기록했고 경기 14명, 인천 17명으로 집계됐다.

박원순 시장은 “콜센터 근무 직원과 오피스텔 거주자 전원에게 오늘 중으로 PCR(유전자 증폭기술) 검사를 완료할 것”이라며 “(검사를 받은) 거주자는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날부터 행정1부시장을 특별지원구역 통제관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구로구 코리아빌딩 일대를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확산 방지 위한 추가 인력을 파견한다. 또 코리아빌딩 방문객 휴대전화 통신접속기록도 전수 조사한다.

박 시장은 “감염 위험이 높았던 지난 달 28일부터 코리아빌딩에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가 필요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인근 기지국 통신기록 제공을 요청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통신 접속기록을 확보해 전수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확진자 발생이 가족 등의 접촉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신속한 역학조사와 격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빌딩 폐쇄 조치가 가능성에 대해선 “13~19층 오피스텔 주민은 전원 음성인 나왔지만 아직 감염 잠복기가 남아있을 수 있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자가격리를 강력히 권고했고 이 부분은 전체를 폐쇄하는 노력과 다름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운영 중단 방안과 관련해 박 시장은 “서울시는 도시 기능은 유지하면서 시민의 자발적 노력과 행정의 선제적 조치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아직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구로 콜센터가)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증상이 있는 시민은 최대한 빨리 조사받도록 해 확진자를 가려내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확진자 동선을 신속히 파악해 접촉자를 자가 격리하고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에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다. 좀 더 근본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서울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 멈춤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hjk1@